



광주 '첨단 3지구 대항개발' 속도 낸다

특혜 논란 현대엔지니어링 140억 공공기여금 합의
1조6천234억 투자 연구개발특구 10월께 착공 전망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광주 첨단 3지구 대항개발사업이 공공기여금 협상 타결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첨단 3지구 대항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단독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전체 수익금 가운데 140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이는 광주전남연구원이 평당 (3.3㎡) 분양가 1천254만원, 수익률 (9.9%)을 적용해 산정한 예상 수익금 1천442억원의 10% 정도다.

당초 현대엔지니어링은 25억원 상당의 공공도서관 (500㎡)을 기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 택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체 수익금의 10% (144억2천여만원)를 공공 기여해야 한다는 시민 단체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

도시공사는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주민, 입주기업 편의시설 등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공공기여금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지난 6월 조달청에 부지 조성 공사 업체 선정이 의뢰한 1·2공구와 함께 전체 사업이 오는 10월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구·광산구와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대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은 전체 부지 361만6천853㎡에 1조6천234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주택 부지인 3공구에 대해 대항개발사업자를 공모했고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광주도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출한 대항개발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해 광주전남연구원에 적정성 검증에 의뢰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2월15일 현대



첨단 3지구 개발 예정지 광주지역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첨단3지구 대항개발사업'이 공공기여금 협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은 첨단3지구 개발사업 부지. /김예리기자

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증 용역을 마친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분양가 1천275만원보다 21만원 낮은 평당 (3.3㎡) 1천254만원을 받더라도 수익금 1천442억원을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평당 1천275만원에 분양할 경우 1천306억원 (수익률

8.7%)의 수익금을 낼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내놓은 총 개발 (투자) 비용은 1조4천545억원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제시한 1조4천987억원보다 442억원 가량 낮은 반면, 수익 면에선 136억원 (1.2%p) 가량 높았다.

대항 개발은 토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전체 부지 중 일부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대항 개발 전체 면적은 107만6천㎡ (32만6천평)로 이 중 22만4천793㎡ (6만8천평) 부지에 3천861세대 규모의 아파트 등이 들어선다.

광주도시공사는 LH와 공동 추진하려고 했지만 LH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대항 개발을 추진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적정성 검증 결과와 시민사회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지난 6월 조달청에 의뢰한 업체 선정 결과가 10월에 통보되면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軍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순조

광주 동구 제외 4개 자치구
주민 5만6천여명 180억 규모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이 본격 시작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동구를 제외한 서·남·북·광산구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보상금 결정 통보 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5만6천750명이다.

피해 보상금 규모는 총 180억1천만원으로 군공항이 있는 광산구가 2만9천366명 (87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다.

군용 항공기 운항 경로에 들어있는 서구는 2만7천204명 (92억3천만원), 남구 179명 (5천만원), 북구 1명 (27만원) 순이다.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현황

구분	계		계좌지급		현금지급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서구	2만7천204명	92억3천만원	2만7천144명	92억1천만원	60명	2천만원
남구	179명	5천만원	179명	5천만원	-	-
북구	1명	27만원	1명	27만원	-	-
광산구	2만9천366명	87억3천만원	2만9천236명	87억원	130명	3천만원
합계	5만6천750명	180억1천만원	5만6천560명	179억6천만원	190명	5천만원

계좌 지급을 신청한 광산구 주민은 지난 16-17일, 북구는 18일 지급이 이미 완료됐다. 서구와 남구는 전날부터 시작해 이날 마무리됐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광산구 주민 130명 (3천만원)은 전날부터, 서구 주민 60명 (2천만원)은 오는 26일 방문을 통해 지급받게 된다.

보상금 대상자이지만 계좌 오류 등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검증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자는 총 189명 (광산구 130명·서구 59명, 총 7천만원)으로 이의 신청을 했지만 결정 통보를 제출한 주민에게는 10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의 신청 후 자치구 재조사를 통한 결정에 인정하지 못한 주민은 재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재심의는 국방부가 직접 심의해 자치구에 통보하게 된다.

군공항 소음 피해 지급 대상은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

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해 말 지정·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소송 없이도 매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보상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까지 13개월 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보상금은 항공기 소음도에 따라 1인당 1개월 기준 ▲1층 (95데클 이상) 6만원 ▲2층 (90데클 이상 95데클 미만) 4만 5천원 ▲3층 (85데클 이상 90데클 미만) 3만원이다. 전입 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기준인 소음 대책 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Today

- 민주 최고위도 친명계 '독식'? 4면
- 내년 광주 아파트 4,429가구 입주 13면
- 최철의 문화살롱 14면

'천정부지' 물가 한풀 꺾이나

8월 기대인플레이션율 4.3%...8개월 만에 하락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 (향후 1년의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전 달 보다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7월 (4.7%)보다 0.4%p 내린 4.3%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 것은 2021년 12월 (0.1%p 하락) 이후 처음이다.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응답 분포를 보면, 앞으로 1년 간 소비자물가가 6% 이상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9.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4-5%' (17.9%), '3-4%' (17.6%) 등이 뒤를 이었다.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 응답 비중을 보면 농축수산물 (47.5%), 석유류 제품 (47.0%), 공공요금 (45.6%) 순이었다.

소비자가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 인식'은 5.1%로 7월과 같았다.

8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49로 전월 (152)보다 3p 하락했다. 한은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한 이후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가 다소 약화된 영향이다.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내릴 것으로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며 이 지수는 100을 웃도는데, 상승 전망 비중이 7월보다 줄었다는 의미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 (CCSI)는 88.8로 1개월 전보다 2.8p 상승했다. 5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하던 CCSI는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지만, 소비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판매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수록 2022 광주·전남지방자치총람 발간!

민선 8기 광주·전남의 미래비전을 담은 유용한 자료집
당선인 및 가족, 지인에 소장가치 높은 선물로 추천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의 공약과 비전을 총망라해 집대성한 700여 페이지 분량.
- 광주매일신문이 야심차게 제작한 지방자치총람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지방자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길라잡이.
- 2022광주·전남지방자치총람은 광주매일신문이 유일하게 제작한 지방선거 자료집.

▶ 구입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 입금계좌 : 광주은행(016-107-323257 : 예금주-㈜광주매스컴)
▶ 정 가 : 20만원